



제2부 부문별 행정



제3편 총무국 _ 제2장 문화관광과

제1절 _ 문화예술 행정

제2절 _ 관광문화재 행정

제3절 _ 공보행정

제1절 문화예술 행정

1. 문화예술 진흥

우리 구는 사적 제215호인 국내 최장의 금정산성과 천년 고찰 범어사 등 많은 문화재를 보유한 유서 깊은 고장이자, 금정도서관·금정문화회관·스포원파크·금정구민체육관, 금정문화재단 등이 있어 전통과 현대를 넘나들며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웰빙 도시이며,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외에도 예술 중·고등학교가 소재하여 문화예술 발전의 기반을 두루 갖추고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6」를 개최하여 지역산업(관광)연계형 축제의 성공을 거두었고, 축제를 통하여 구민이 직접 참여하는 지역관광개발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기여하였으며, 부산대 지역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한 예술공연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청년문화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부산대학로 일원에 야외공연장을 조성하여 정기적인 문화공연 개최로 청소년·청년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가. 특색 있는 지역문화 창달

○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개최

문화예술교육특구 금정구는 품격 높은 문화예술 행사와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창출하고, 독창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전통문화에서 문화예술의 근원을 찾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적 제215호인 금정산성과 민속주1호인 금정산성 막걸리 등의 지역특성을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고, 전통 역사 문화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상품 개발을 위하여 힘쓰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016년 축제는 “금정산성”, “금어”를 소재로 한 주제프로그램의 개발과 다채로운 체험 및 연계행사 등을 준비하여 가족단위 체험행사와 시민 모두가 다함께 들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2013년부터 금정산 일원에서 개최하는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는 고유문화의 우수성 등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해 금정산성의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가족 체험형 프로그램 및 동문 일원 역사재현 주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국가지정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금정산성과 연계한 대중성과 예술성이 결합

된 다양한 축제콘텐츠를 개발하여 금정산성과 막걸리의 우수성 홍보하고 지역 특산품 브랜드화, 금정산성과 막걸리의 이미지 연계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금정구는 향후에도 지역 축제의 역량 강화를 위한 노하우 및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축제 주제(소재)와 관련된 대표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주민이 참여한 프로그램 실행력 강화 및 집약의 필요성을 가지고 지역 문화예술단체와 주민과 직접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힘쓸 계획이다.

나.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

○ 금정문화원

2000년 7월 개원한 금정문화원은 우리지역 고유문화를 계발, 보급, 보존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문화사업 추진으로 지역문화의 경쟁력 향상과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새해 첫날 부산의 영산인 금정산에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해맞이 행사를 시작으로,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 우리소리·우리 춤·우리가락의 멋스러움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통춤·소리공연(국악한마당) 개최와 어르신 문화학교 운영, 향토문화지 발간 등 구민화합과 전통문화의 전승·보급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매년 일부 주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내용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문화예술 행사를 추진하고 문화유적지 역사탐방, 금샘문학상 공모 등 남녀노소와 전국을 아우르는 지역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타 지역 문화원 우수 사업을 벤치마킹하는 등 적극적 문화교류 활동을 통해 다양한 문화사업 발굴로 문화예술교육특구로서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였다.

○ 금정문화원 건립

전통문화의 계승·보급 및 지역문화 창달과 지방문화원진흥법 관련 문화원의 시설기준 충족을 위해 「금정문화원 건립」을 추진하였다.

역사와 예술의 고장다운 전통미가 가미된, 금정구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원 고유한 사업에 걸맞은 디자인으로 건축하기 위해 2016년 5월 설계공모를 추진하여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조화된 작품이 전문가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16년 8월에서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을 추진하였다. 『금정문화원 신축공사』는 2016.12.26. 착공하여 2017.8.22. 완공예정이며 총사업비 23억6천8백만원 건축규모

는 1개동 3층이며, 연면적은 709.22㎡이다.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2층은 도서실과 사무실로 3층은 다목적홀과 프로그램실로 배치하고 주차면수는 총 14면이다.

금정문화원 완공되면 전통문화 창달 등 문화원 목적사업 추진 등 기대에 부응할 것이다.

○ 금정문화재단

문화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필요한 요소라 생각하고 구민에게 보다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산시 구군 중 최초로 2016년 6월 금정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금정문화재단은 금정구의 문화여건 및 문화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그에 따른 문화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문화 지표 조사를 선행하여 실시하고,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온천천을 문화 광장으로써 특성화하는 “금어 빛 거리” 콘텐츠 개발하였다. 또한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우리 아이들이 문화로 미래세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UN국제 활동 동아리 프로젝트와 유네스코 문화유산 교실 등을 진행하였으며, 효율적인 사무환경 구축과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무자동화시스템 도입, 홈페이지 구축 등 조직 운영의 조기 안정화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다.

앞으로 금정문화재단은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중 최초 설립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구민이 문화예술의 주체로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면서 문화혜택에서 소외되는 구민들이 없도록 살펴보고, 금정구만의 차별화된 문화정책을 개발해 지역 특유의 문화 색깔을 잘 꾸며 내어 금정구민의 생활 속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역할과 노력을 할 것이다.

○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 운영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진흥 발전의 구심체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금정구 문화예술인협의회가 관내 거주 문화예술인으로 구성되었다. 현재 문학·미술·음악·사진·무용·연극·국악·서예·연예인협회 9개 분과 470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구청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하여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행사 개최 시 주관 또는 자문을 담당하기도 하고 있다.

2014년에는 「제13회 금정사생대회」, 「금정문예 제17집 발간」, 「제18회 금정백일

장」과 같은 행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창작 욕구를 충족시키고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2015년에는 금정구 문화예술인협회의 최대 행사인 금정예술제가 ‘구민과 함께하는 금정예술의 대향연’의 이름으로 개최되었다. 예술제 기간 동안 협의회 내 9개 분과 협회가 각각 「깃발시화전(문인협회)」, 「금정서예전(서예협회)」, 「제13회 금정사진전(사진협회)」, 「제18회 금정미술전(미술협회)」, 「금정열린음악회(음악협회)」, 「금정무용제(무용협회)」, 「금정연극제(연극협회)」, 「금정국악제(국악협회)」, 「금정가요제(연예인협회)」를 준비하여 지역 문화예술가들은 1년간 닦은 그 기량을 펼쳐 보이고, 주민들은 다양한 분야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16년 10월에는 “제21회 금샘예술축제”란 이름으로 구민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으며, 「금정미술전(미술협회)」, 「금정사진전(사진협회)」, 「금정서예전(서예협회)」, 「깃발시화전(문인협회)」, 「소리는 가을을 타고(국악협회)」, 「원탁의 기사(연극협회)」, 「금정의 춤 향기(무용협회)」, 「금샘 열린 음악회(음악협회)」, 금정구민 한마당(연예인협회)」를 개최하여 문화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 육성에 기여하였다.

〈 금정구문화예술인협회 구성 현황 〉

계	문인 협회	미술 협회	음악 협회	무용 협회	연극 협회	사진 협회	서예 협회	국악 협회	연예인 협회
470	95	158	29	26	23	34	42	42	21

다. 문화예술 기반 구축

○ 부산대학로 문화의 거리 조성

부산대 일원은 90년대 최고의 젊음의 거리였으나, 날로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상권이 침체되는 등 대학가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 홍대거리, 우수문화시설 등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2014년 9월 부산대 일원 다양한 문화공간들과 연계하고 국내·외 아티스트와 함께한 거리문화축제 부산인디페스타 ‘ZERO FESTIVAL 2016’, ‘클럽투어·음악오아시스’는 인디밴드 거리공연, 실내공연, 미술작품 전시, 포럼, 독립영화상영 등 다양한 문화를 선보여 일반 시민과 문화단체들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문화단체 반상회 ‘금정예술공연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단체간 협

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문화공연이 함께하는 영화상영, 부산대학로 거리문화 전반에 대한 포럼, 전시 등 문화를 이해하는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온천천 야외공연장 및 2013.10월에 조성된 도시철도 부산대역 앞 야외공연장은 만남·소통·어울림의 공간을 테마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공연’, ‘부산대학로 음악 오아시스’ 및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문화행사 등 많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부산대학로가 명실상부한 문화의 거리로 도약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부산대학교 지하철 1번 출구 옆“문화나눔터”와 부산대학교 지하철역 온천천변 “어울마당”을 중심으로 130여개 예술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있으며 공연·전시 외에도 아트 프리마켓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청년 예술가들의 창작활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 청년문화를 인큐베이팅하는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성장하고 있다.

○ 예술공연지원센터 운영

침체되어 가는 부산대학로를 문화예술과 연계하여 활력 넘치는 젊음의 문화거리로 만들어 청년문화의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부산대 일원에 예술공연지원센터가 조성되었다. 2011. 12. 22.(목) 개소한 이래 예술공연지원센터는 부산대 일원의 다양한 청년단체 및 문화예술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 분야의 상승효과를 유도하는 등, 지역 문화예술의 매개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며 우수한 문화콘텐츠의 지속적인 발굴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운영 기치가 대학로 청년문화 활성화인 만큼, 2016년 역시 문화예술 분야 활동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역점을 두고 운영되었다. 그 결과, 문화예술계 인사의 멘토링 강연과 공연을 결합한 「청춘 토크콘서트」 2회, 6회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현장 실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나는 현장을 뛰는 기획자다」, 「GAS 글로벌 문화를 담다」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과 동떨어진 딱딱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다 피부에 와 닿는 살아있는 경험담을 전해주고 프로그램 참석자들의 공감과 호응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이 외에도 「청년아카데미」, 「동아시아 연극 교류 “HANARO PROJECT”」 등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도움과 재미를 함께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물론 기존의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문화예술 분야는 개인 또는 단체의 열성적인 활동도 중요하지만 예술가 간, 단체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창발에서 기존의 흐름과 다른 새로운 문화예술이 탄생하는 등,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기대효과 역시 점점 중요해지고 있음에 특히 주목했다. 때문에, 관내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들을 한 자리에 모아 교류하는 「금정예술공연 네트워크」나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전 세계 예술가들을 초청하여 개최된 「국제아트캠핑 아티스트 토크」 등을 통해 문화예술 네트워크의 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에 자생력을 부여하려고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우리 동네 뮤지션들의 ‘우리 동네 투어」」는 주민대상 악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참여자의 정서적 치유와 자아실현 및 지역 예술단체와 주민사이의 소통과 교류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여름 기획공연 「2016 대학로 열대야 페스티벌」과 겨울 기획공연 「2016 따끈따끈 콘서트」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예술공연지원센터의 공간 역시 알뜰하게 이용되어 센터 내의 전시 공간은 지역 문화단체의 다양한 수공예 작품 전시, 오프라인 판매 등 문화예술 거점 공간으로 활용되었으며, 2016년 한 해 동안 다목적홀 대관 및 기획·협력 사업으로 300회가 넘는 행사가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진행되었고 예술공연지원센터에서 관리하는 문화나눔터, 온천천 어울마당은 총 142회의 대관이 이루어졌다.

문화예술에 대한 예술공연지원센터의 지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존의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운영은 물론이고 축제성 행사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발굴도 꾸준히 시도하여 지역 문화예술계와 일반 주민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부산 대표 문화예술거리를 만들고자 한다.

○ 서동예술창작공간 및 섯골문화예술촌 운영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서동지역에 주민 밀착형 복합 문화예술공간인 서동예술창작공간을 조성(지상 2층 529.62㎡), 다목적홀, 북카페, 작은도서관, 강의실, 갤러리 등을 갖추고 2012. 6. 28. 개관하였으며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을 추구하고 있다.

서동예술창작공간은 2012년 개관이후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는데 2016. 3월에는 Earth Hour, 「서동에 별을 채우다」라는 주제로 탄소배출량 감축,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세계적인 불끄기 행사를 개최하였고, 「국제아프리카 영화제」를 유치하여 쉽게 접하기 힘든 신선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소개로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작은 도서관 도서대출 1,425명 4,146권, 다목적실 대관 397건, 강의실 대관 88건 등 주민밀착형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서 역할을 하였으며, ‘책, 온몸으로 말하자’, 어린이 인형극 ‘천원의 행복’ 등 지역 스토리 개발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였다. 이외에도 아우인형 전시회 외 8여차례의 전시회, 수요상설 영화상영 44회, 매주 수요일 작은 갤러리 ‘숨’ 20회 개최하였다

또한 10,000천원의 예산을 들여 우수문화예술 콘텐츠 발굴 및 운영 프로그램 유치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2개 단체를 선정되어 서동 주민들의 스토리텔링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통을 주제로 “우리동네-웹툰-서동이야기” 제작하였으며, 시장원리 등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4가지 형태의 주제를 정하고,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연극놀이, 영상제작 등) 통한 ‘서동에서 놀자!’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서동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그 외에도 지역문화전문가 초청 포럼을 개최하여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문화콘텐츠 발굴에 기여하였다.

2012년 개관 이래 각종 언론에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며 부산일보 및 국제신문에 지구를 쉬게하는 어스아워 ‘서동에 별을 채우러가요’ 등 서동예술창작공간의 프로그램들이 집중 소개되었고 13회 이상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외에도 대관 및 작은도서관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복합문화센터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상주연주단체 등 문화예술 협력단체의 재능기부 활동으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있다.

또한, 서동예술창작공간과 더불어 서동지역의 문화예술 도시구현을 위한 예술인 창작공간 조성을 위해 부산시로부터 3억원을 교부받아 인근공간 주택건물(서부로 16번길 21-4)을 매입, 리모델링을 통해 예술인 작업공간인 “섯골문화예술촌”을 조성하였다. 지상2층 135.47㎡로 작업공간과 거주공간으로 되어 있으며 “섯골문화예술촌”이란 서동의 옛 지명인 “섯골”과 “문화예술촌”을 결합하여 현재의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입주작가 공모를 통하여 캘리그래피, 클레이아트, 생활공예, 공공예술기획, 공예작가단체 등 총 5개팀이 선정되어 입주를 마치고 창작활동 중에 있다.

앞으로도 서동예술창작공간은 서동지역이 문화마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컨텐츠 발굴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섯골문화예술촌”을 필두로 예술가들의 창작인프라 구축 및 지역 커뮤니티 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문화 공간 현황 〉

계	문화회관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문예기념비	동상	김정한생가
20	1	3	2	1	2	9	1	1

〈 문화회관 현황 〉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금정문화회관	금정구 체육공원로 7 (구서동)	대공연장 868석	금정구청
		소공연장 330석	

〈 박물관 현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부산대학교 박물관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장전동)	1,900㎡	유물 20,943점 자료 29,685권	부산대학교
범어사 성보박물관	금정구 범어사로 250(청룡동)	502㎡	유물1,304건1,325점 자료 912권	범 어 사
오륜대 한국 순교자박물관	금정구 오륜대로 106-1(부곡동)	1,591.76㎡	유물 3,105점 자료 1,000권	한국순교 복지수녀회

〈 도서관 현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서 동 도 서 관	금정구 서부로 76번길5(서동)	610.2㎡	도서 64,694권	부산시교육청
금 정 도 서 관	금정도서관로 33 (청룡동)	8,466㎡	도서 67,002권	금 정 구 청

〈 미술관 현황 〉

명 칭	소 재 지	규 모		관 리 자
		면 적	소 장 품	
김스아트필드 미술관	금정구 죽전1길 29(금성동)	271.4㎡	조각, 회화 등 305점	전 예 화

〈 영화상영관 현황 〉

명 칭	소 재 지	좌 석 수	관 리 자
롯데시네마오투	금정구 중앙대로 1607(부곡동)	총 1,052석	이 원 준
메가박스 부산대	금정구 장전로12번길 55(장전동)	총 1,065석	김 진 선

〈 문 예·기 념 비 현 황 〉

명 칭	소 재 지	설립일자	관 리 자
요산 김정한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4. 4. 26	금정구청장
향파 이주홍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2. 14	금정구청장
김종식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58-2)	'94. 4. 9	금정구청장
황산 고두동 문학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7. 2. 22	금정구청장
김대륜 그림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435-21)	'98. 2. 28	금정구청장
3·1운동 유공비	범어로 하행선 문화의 거리(청룡동 산 2-1)	'96. 11. 28	금정구청장
민영훈공 거사비	금정구 부곡2동 255-8	'93. 7.	금정구청장
신정용열사 추모비	금정구 남산동 산1-1	'96. 4. 19.	금정구청장
6·25참전용사기념비	금정구 노포동 810-6	'03. 6. 18	금정구청장

제2절 관광문화재 행정

1. 문화재 현황

우리 구에는 지정문화재 총 107점(국가지정문화재 16점, 시지정문화재 91점)이 있으며, 보관 장소로는 성보박물관, 범어사내, 기타 등으로 대부분의 문화재인 불교 관련 서적 및 불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

2. 문화재 보호

우리구의 대표적인 문화유적지로는 사적 제215호로 우리나라 성곽 중 가장 규모가 큰 송고한 호국정신이 깃든 국방유적지인『금정산성』(길이 18,845m)과 국가지정 보물인 대웅전, 삼층석탑, 조계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인 등나무군락 외에도 많은 비지정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범어사』가 있으며, 이는 부산의 대표적 문화관광 유적지이기도 하다.

특히 금정산성 복원사업은 호국 정신을 되살리는 뜻에서 장기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선·두구·노포·오륜동 지역은『노포동 고분군』을 비롯한 고분군 문화유적지로서 삼국시대와 가야시대의 유물이 발견 출토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우리구는 금정산과 범어사 등의 넓은 지역에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어 등산객과 관광객들에 의한 문화재 훼손 및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보호 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가. 관리 실태

금정산성은 문화재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복원을 위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복원사업 중에 있으며, 관리 기관은 상·하반기 연2회에 걸쳐 소방 훈련을 실시하는 등 범어사에 소재하고 있는 소중한 목조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재난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방화관리 용역 및 시스템 유지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금정산성과 범어사 등 문화재가 소재한 현지에 문화재관리인을 상시 배치하여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 청결활동 및 보호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 소개 및 안내 등

홍보활동도 담당하게 하여 문화재의 보호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나. 보호 관리 대책

○ 화재예방

중요목조문화재(범어사 대웅전, 조계문 주변)에 대한 정기적인 전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화재 안전경비 인력을 배치(6명)하여 24시간 교대근무 순찰,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예방을 위해 범어사, 금정소방서, 금정구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연 2회 소방훈련을 실시하여 화재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불의의 사고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소실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문화재 안전점검 및 사전예방

해빙기, 우수기, 동절기 등 정기적인 관리실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산객과 관광객들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3. 문화재 보수

가. 금정산성 정비사업

금정산성은 국내 최대의 국방유적지로서 1972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수정비 계획을 수립 복원하고 있으며, 민족문화 유산의 온전한 복원과 쾌적한 유적지 환경을 조성하여 나라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문루·망루 8개소 및 성곽을 보수 정비하고 있으며,

특히 1990년 이후 성곽보수가 체성 형태로만 보수 승인되었으나, 2009년 보수공사 시행시 문화재위원 현장 확인, 자료 고증 등 수차례 협의에 의한 여장 설치로 제 모습을 갖춘 웅장함과 볼거리 제공으로 부산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으며,

2015년 17억, 2016년 10억을 투입하여 서문 해체보수 및 성곽정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금정산성 복원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중이다.

나. 범어사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범어사는 금정산, 금정산성과 연계하는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보물인 범어사 대웅전을 비롯하여 많은 문화재가 집중 분포하는 지역으로 민족의 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다. 또한 부산의 역사와 같이

하는 천년고찰로서 사찰의 풍취와 면모를 일신하고자 노후되거나 조잡한 요사채를 개·보수하는 등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969년부터 지속적으로 요사채 증·개축 및 주변정비사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0년 대웅전 벽화모사 보수 보존처리와 강원건물 및 성보박물관 보수정비 하였고, 2011년 보제루 해체 복원, 시민문화광장을 조성하였으며, 2012년에는 원효암 대웅전 및 요사채 해체보수, 2013년에는 일로향각, 청풍당, 비로전, 미륵전 해체보수 등 대웅전과 조계문 주변 정비, 2014년에는 범어사 대웅전 휴휴정사 해체보수 및 석축 정비, 2015년에는 범어사 관음전, 서향각, 산령각 보수, 팔상독성나한전 석축 보수, 2016년에는 범어사 심검당 해체보수, 해행당 옆 계단정비 등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을 지키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다. 범어사 성보박물관 운영

범어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고찰로서 근세에 이르기까지 왜적의 침입에 맞서 이 땅을 수호해 온 호국 사찰로 수많은 고승과 율사를 배출한 전통사찰이다. 사찰 내에 많은 문화재를 수장하고 있으나 보존하는 시설이 없어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1999년 사업비 2,209백만원으로 유물전시관 건립사업을 착공하여 2000년 완공하였으며 2010년에 3억원으로 내부 전시실 인테리어 및 수장고 보수를 마무리하였다. 연면적 505.44㎡의 유물전시관에는 보물 제419-3호인 삼국유사를 비롯하여 천수책판 등 22종 283점의 동산문화재를 전시하고, ‘금어연’ 제작, 관조스님 유작필름과 백운스님 소장전적을 기증받아 정비하는 등 관광객에게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널리 홍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을 후세까지 길이 보존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4. 무형문화재 전승보급 추진

우리 민족 전통예술의 보전과 육성보급을 위하여 지정한 동래고무(시지정 무형문화재 제10호) 전수학교로 부산예술고등학교 20명, 동래학춤(시지정무형문화재 제12호) 전수학교로 부산정보관광고등학교 45명, 2013년에 새로 수영야류(중요무형문화재 제43호) 전수학교로 지정된 서명초등학교 50명에 대하여 전승보조금(17,250천원)을 지원하여 각종 예술행사 개최 시 공연을 통하여 시민의 문화향수를 고취시키는 물론 우리민족의 우수한 전통예술을 대외에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부산시 제24호 전각장 문화재 보유자(1명) 및 전수장학생(6명)에게 전승보조금(32,250천원) 지원하여 무형문화재 전승보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5. 범어사 등나무 군락지 보존 관리

천연기념물 제176호(1966.1.13. 지정)인 범어사 등나무 군락은 6,500여 그루의 등나무가 어우러져 자라는 희귀한 자생지로 예로부터 범어사 계곡 일대에 등나무 꽃이 필 때면 그 경치가 아름다워 ‘등운곡(藤雲谷)’이라고도 불리어 왔다.

등나무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덩굴식물로 꽃은 5월에 피고 열매는 9~10월에 맺는데, 이곳은 수령이 약 100년 된 큰 등나무를 비롯하여 280여 종의 거목들과 희귀식물들이 자라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원시림과도 같은 지역이다.

그러나 등나무가 타고 올라가는 나무가 고사하면서 등나무도 따라서 고사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사업비 242백만원을 확보하여 생육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2004년 사업비 100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관찰로 825m 설치, 등나무 외과수술, 덩굴정리 및 당김줄 설치, 의목 설치 등 입지성 회복사업을 추진 완료하여 등나무 군생지는 보기 드문 자연원시림으로서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편안한 휴식처와 산책로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6년 사업비를 100백만원으로 등나무보호사업, 탐방로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300백만원으로 천연기념물 식물 보수치료사업을 계속하여 실시하고 있다.

6. 관광금정 구축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갈맷길, 자연휴양림, 편백나무숲을 보유한 금정구의 대표적 트레킹 코스인 도심속 힐링1번지 ‘회동수원지 둘레길’ 스토리텔링지도를 제작하여 관광안내소, 공항, 호텔 등 국내·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배부하여 관광활성화 추진에 기여하였으며, 노포동고분군 및 금정산성부설비 문화재 안내판을 신설 정비하여 정확한 문화재 안내 정보제공으로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하였다.

그리고 역사·문화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우리 고장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기억에 남는 체험관광을 위해 범어사, 금정산성 등 외래방문객의 방문이 잦

은 주요 관광지에 관광공사와 연계하여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과 다양한 서비스로 다시 찾고 싶은 금정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관광객의 재 방문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5년 5월 금성동 688번지 일원 공해마을 인근에 금정산성의 국가 사적으로서의 가치 증대 및 관광 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설치된 다목적 광장은 토요일 상설공연 및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개최,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시설효용 증대로 금정산을 찾는 시민 및 방문객에게 문화·여가 활동 지원에 노력하였으며 다목적 광장 입구에 관광안내판(금정산 등산로)을 설치하여 관광안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또한, 아름다운 우리고장 금정에 산재해 있는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특색에 맞게 발굴·관리하여 관광금정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광 자원의 체계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관광금정을 구축할 계획이다

〈 총 현 황 〉

(2016. 12. 31. 현재)

(단위 : 점)

계	국가지정문화재 (16)							시지정문화재 (82)				
	국보	보물	사적	천 연 기념물	무 형 문화재	중요민속 문화재	등 록 문화재	유 형 문화재	무 형 문화재	기념물	민 속 문화재	문화재 자 료
107	-	10	1	1	1	1	2	56	1	3	1	30

〈국 가 지 정 문 화 재〉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보 물 (제250호)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釜山 梵魚寺 三層石塔)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탑으로 당시의 불탑 및 조각수법의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1963. 1.21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보 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 (三國遺事 卷四~五)	일연이 편찬한 삼국시대 역사서. 서울 광영대 소장본이 보물 419호로 지정되어 있음. (1512년 중종 7)	2002.10.19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釜山 梵魚寺 大雄殿)	통일신라시대의 건물을 조선 중기에 중창한 목조 건물로 불당의 구조 및 양식이 잘 나타나 있음	1966. 2.28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보 물 (제1461호)	부산 범어사 조계문 (釜山 梵魚寺 曹溪門)	사찰의 일주문이 가지는 기능적인 건물로서 한국전통 건축의 구조미를 잘 표현한 일주문의 걸작품임	2006. 2. 7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보 물 (제894-2호)	주범망경 (注梵網經)	우리나라 불교 계율의 기초를 이루는 경전으로 후진의 구마라집이 번역한 『범망경노사니불설보살심지계품』인데 줄여서 주범망경이라고 함	2007. 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224-2호)	불조삼경 (佛祖三經)	인도에서 가장 먼저 중국에 전래된 경전으로 알려진 불설사십이장경과 부처의 최후 가르침인 불유교경, 그리고 중국 위양종의 초조인 영우의 위산경책 등 불경 3종이 합집된 것임	2007. 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5호)	금장요집경 권1~2 (金藏要集經 卷一~二)	이 책은 북제(北齊)의 승려 도기(道紀)가 각 경전에서 불교 교화에 도움이 되는 인과응보에 관한 설화를 중심으로 편찬한 7권 가운데 2권(권1-2)임	2007. 9.18	범어사 성보박물관
보 물 (제1526호)	부산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삼 존좌상 (釜山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 尊坐像)	이 삼존좌상은 범어사 대웅전의 주불로서 개금시(改金時) 복장에서 발견된 불상기문과 불상기인발원축을 통하여 석가불과 미륵보살, 제화갈라보살의 수기삼존불로 조성	2007. 9.18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보 물 (제1595-2호)	목장지도 (牧場地圖)	숙종 때 국가의 중대한 마정(馬政)의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목장의 실태에 대한 그림과 지리적 지식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으로 역사적 가치가 높으며 회화사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	2008.12.22	부산대학교 도서관내
보 물 (제1733호)	부산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靑銅金鼓)	1666년에 조성된 국청사 금고는 직경이 65.3cm에 이르는 제법 규모가 큰 작품으로 일부 산화된것 외에는 파손된 곳이 없이 보존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조선후기 금고의 선형 양식을 잘 보여주고 있음.	2011.12.23	범어사 성보박물관
사 적 (제215호)	부산 금정산성 (釜山 金井山城)	신라시대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 산성으로 임란이후 현 규모로 조성된 국방유적임	1971. 2. 9	금성동일원
천연기념물 (제176호)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釜山 梵魚寺 藤나무群落)	수령 100년생의 등나무 500여 그루가 군락을 이루고 있음(면적 55,934㎡)	1966. 1.13	청룡동 산2-1 범어사경내
무형문화재 (제80호)	자수장 (刺繡匠)	여러색깔의 실을 바늘에 꿰어 비탕천에 무늬를 수놓아 나타내는 조형활동의 전통공예기술	1996.12.10	중앙대로17 93번길 50
중요민속 문화재 (제274호)	의왕 원유관 (義王 遠遊冠)	고종과 귀인 장씨 소생인 의화군이 의왕책봉때 착용한 왕실용 관모로 현존하는 유일한 조선시대 원유관임	2013. 6.14	오륜대한국 순교자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등록문화재 (제641호)	부산대학교 구 본관	김중업의 작품으로 그의 초기 건축적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 작품 중 하나로 가치가 있음.	2014.10.30	부산대학교 박물관
등록문화재 (제642호)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	지면에서 떠있는 구조로 전면에 큰 유리창 구성을 하고 있는 등 근대 모더니즘 양식의 건축물로 한국 현대건축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김중업의 작품으로 가치가 있음.	2014.10.30	부산대학교 박물관

〈시 지정 문화재〉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문화재 (제9호)	오층석탑 (五層石塔)	전형적인 오층석탑으로 1층 4면에 각 천왕의 특징이 뚜렷한 사천왕상이 조각되어 있음	1972. 6.26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1호)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 6.26	원효암
유형문화재 (제12호)	원효암 서편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신라말기 석탑으로 전체적으로 아담하여 동·서 석탑이 다른 대조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음	1972. 6.26	청룡동 525 원효암내
유형문화재 (제15호)	범어사 당간지주 (梵魚寺 幢竿支柱)	법회나 의식이 있을 때 대형 기치를 걸어두는 지주로 장식이 전혀 없어 간결 소박한 멋을 나타내고 있음	1972. 6.26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16호)	범어사 석등 (梵魚寺 石燈)	통일신라시대의 전형적 석등으로 각 부분이 8각으로 되어 있음	1972. 6.26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25호)	이안눌 청룡암시 목판 (李安訥 靑龍巖詩 木板)	동래부사였던 이안눌이 범어사를 방문하고 지장전 옆 바위에 새긴 시를 목판으로 판각한 것 (1609년 광해군 원년)	1999. 9. 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26호)	천수 책판 (千手 册版)	7판으로 된 천수경판으로 김해 감로사에서 개간한 것을 범어사로 옮겨와 간행한 것 (1676년 숙종 2)	1999. 9. 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27호)	어산집 책판 (魚山集 册版)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범어사에서만 소장하고 있는 범응집의 일종으로 범패연구에 귀중한 자료임 (1700년 숙종 26)	1999. 9. 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28호)	범어사가, 범어사창건사적 범어사고적판 (梵魚寺紀, 梵魚寺 創建史蹟, 梵魚寺古蹟板)	범어사의 창건에 대한 기록을 새긴 3종의 목판으로 古木板 (1700년 숙종 26)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문화재 (제29호)	선문찰요 책판 (禪門緘要 冊版)	중국 역대 선사들의 저술과 우리나라 고승들의 저술을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0호)	권왕문 책판 (勸往文 冊版)	몽매한 중생들을 깨우쳐 불심을 일으키기 위한 내용의 권왕가, 자책가, 서왕가를 언문으로 수록한 책판 (1908년 융희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2호)	태전화상주심경 (太顛和尚柱心經)	당나라 고승인 태전화상이 반아심경에 주석을 단 책 (1411년 태종 11)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3호)	함허어록 (函虛語錄)	조선초 고승인 근화의 시문집으로 우리나라 불교연원을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임 (1440년 세종 2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4호)	지공직지 (指空直旨)	인도 승려인 지공선사의 진리의 깨달음에 관해 이야기한 책 (1475년 성종 6)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5호)	선종영가집 (禪宗永嘉集)	당나라 원각이 수행과정에 대해 적은 책으로 1381년판본이 보물 641호로 지정됨 (1542년 중종 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6호)	불설대보부모은중경 (佛說大報父母恩重經)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것을 가르친 불교경전으로 1378년 판본이 보물 705호로 지정됨 (1562년 명종 1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7호)	육조대사법보단경 (六朝大師法寶壇經)	禪宗의 6대조 慧能의 일대기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에서 경전처럼 존중 받는 책 (1569년 선조 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8호)	금강반야바라밀 경변상 (金剛般若波羅密 經變相)	금강반야바라밀경의 내용을 그림으로 묘사한 책 (1570년 선조3)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39호)	불조역대통재 (佛祖歷代通載)	석가탄생에서 1334년까지 고승대덕의 전기를 편년체로 수록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 737호로 지정되어 있음 (1430년 세종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40호)	몽산화상법어약록 (蒙山和尚法語略錄)	원나라 몽산화상 법어를 요약한 책으로, 1472년 판본이 보물768호로 지정되어 있음 (1579년 선조 12)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41호)	범어사 묘법연화경 (梵魚寺 妙法蓮華經)	회엄경과 함께 한국불교사상 확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태종의 근본경전으로 문헌사적으로 귀중한 자료임 (1527~1711년 중종22~숙종37)	1999.11.19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51호)	범어사 사천왕도 (梵魚寺 四天王圖)	1869년 제작, 세로350cm 두루마리형으로 사천왕상 단독으로 그려진 불화는 현재 범어사 소장본이 제일 규모가 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52호)	범어사 제석신중도 (梵魚寺 帝釋神衆圖)	기년명이 뚜렷하여 제작시기를 알 수 있고 19세기 명문서식과 조선후기 영남지역 화승들의 계보를 참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문화재 (제53호)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자애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관음보살도로서 관음전 전각의 관음불상의 후불화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54호)	범어사 의상대사영정 (梵魚寺 義相大師影幀)	고려시대 양식 계승, 1767년 작품으로 조 선후기 불교회화 연구에 중요한 자료임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63호)	범어사 팔상· 독성·나한전 (梵魚寺 捌相· 獨聖·羅漢殿)	한 채에 세 법당을 연이어 붙인 길쭉한 건 물로서 1613년 묘전화상이 나한전을 창건, 1705년 명학스님이 팔상전을, 1905년 학암 스님이 현재의 건물로 새롭게 중건함	2006.7.3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67호)	범어사 대웅전 석가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釋迦靈山會上圖)	1882년에 제작된 족자형의 대형 탕화이다. 대형 화면에 본존불을 위시한 협시상들과 엄숙한 표정의신중들이 잘 조화를 이룸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68호)	범어사 대웅전 삼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1882년에 제작 상·하단으로 나누어 진 화 면의 천장 보살을 중심으로 좌우에 좌상의 지지보살과 지장보살 을 배치함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69호)	범어사 대웅전 제석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帝釋神衆圖)	대웅전 내부 우측 벽에 걸려 있는 이 작품 은 조선후기 신중도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70호)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18세기 전반의 작품으로는 비교적 큰 규모 이며, 작품이 뛰어나고 보존 상태도 양호할 뿐 아니라, 특히 대좌의 목서명에 의해 제 작성기, 봉안처, 조각승 등이 확실히 밝혀 져 문화재적 가치가 높음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71호)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니삼 존불좌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 尊佛坐像)	관음전 목조불상과 함께 조각승 진열의 작 품 연구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보존상태가 양호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72호)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彌勒殿 木造如來坐像))	미륵전에 단독불로 봉안되어 있는 이 불상 은 현재 범어사에 봉안된 목조 불상 중 규 모가 가장 큼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73호)	범어사석조연화 대좌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 臺座下臺石)	상·중·하 3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좌 중 꼭이 47cm에 이르는 규모가 큰 8각의 하대 석	2006.11.2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문화재 (제76호)	불설장수멸죄호 제동자다라니경 (佛說長壽滅罪護 諸童子陀羅尼經)	인도 승려 불타파리(佛陀波利)가 676년에 번역한 책으로 죄를 멸하고 장수하는 법을 설한 밀교계통의 경전으로 석가세존(釋迦世尊)이 문수사리보살(文殊師利菩薩)에게 일체 중생의 멸죄장수(滅罪長壽)의 법을 설(說)한 경	2007.9.7	금정중학교 (중앙대로 2104)
유형문화재 (제80호)	금강반야바라밀경 (金剛般若波羅密經)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읽혀졌던 대표적인 불교경전 중의 하나로서 금강경(金剛經) 또는 금강반야경(金剛般若經)이라고도 불림.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81호)	보리달마사행론 (菩提達摩四行論)	달마의 선사상에서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입(理入)과 행입(行入)이 있고, 행입에 해당되는 네 가지의 생활방식으로 사행(四行)이 있음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82호)	선문염송집 (禪門揜頌集)	이 책은 한국 선불교에 초석을 놓은 보조국사 지눌(普照國師 知訥)의 제자인 진각국사 혜심(眞覺國師 慧諶)이 지눌에 의해 주창된 간화선(看話禪)의 선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제자들과 함께 염·송·사당거화(拈·頌·士堂擧話) 등 중요한 말들을 모아 총 30권으로 집성·편찬한 책	2007.9.7	범어사 성보박물관
유형문화재 (제90호)	범어사 동종 (梵魚寺 銅鐘)	1728년에 제작된 범어사 동종은 우리나라 18세기 범종 주성에 활발한 활동을 펼친 전라도 출신 김성원과 김선봉이 주성한 것으로 현존하는 18세기 범종으로는 규모가 제법 큰 편에 속하는 작품.	2008.9.11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96호)	범어사 원효암 목조 관음보살좌상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본 보살좌상은 방형의 얼굴, 뭉툭한 코, 머리의 비례가 짧음, 대의의 특징 중 목 좌우측 옷깃이 역삼각형을 이룬 점, 대의 끝자락이 구불구불한 물결 모양으로 처리된 점 등은 모두 조선시대 17세기 불상 혹은 보살상에서 흔히 엿보이는 특징과 유사	2008.12.16	원효암
유형문화재 (제130호)	금천선원 묘법연화경 (金泉禪院 妙法蓮華經)	백련꽃과 같이 올바른 가르침을 주는 경전으로 1477년에 간행된 오래된 판본으로 전해지는 7권 완본임	2013.10.23	금천선원 (금샘로271)
유형문화재 (제136호)	마흥목처신반진 씨지석 (馬興牧妻新反陳 氏誌石)	조선 초기에 도자기로 만들어진 15세기 지석의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이며, 당시의 행정구역과 지명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	2014.1.22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39호)	범어사 사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獅子庵 石造菩薩坐像)	20세기 초 부산 지역 불상과 조각승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며, 현재 범어사 팔상전과 나한전에 남아 있는 20세기 초 불석재 불상들에 대한 연구에도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작품	2014.3.19	사자암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문화재 (제141호)	범어사 원효암 아미타삼존도 (梵魚寺 元曉庵 阿彌陀三尊圖)	1892년에 금어 해규(金魚 海珪)가 단독으로 제작하여 범어사 원효암에 봉안, 이 작품은 19세기말 아미타내영 형식의 삼존도상 연구는 물론 화승인 해규의 화풍을 파악하는 데 가치가 있는 작품	2014.5.21	범어사로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142호)	아미타내영도 (阿彌陀來迎圖)	화기를 통해 1813년에 성총(性聰)이라는 화 승이 제작했음을 알 수 있으며,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된 선묘불화의 하나로 파악, 특히 조선 후기 선묘불화 중 흑지 바탕에 금니로 제작된 흑탱(黑幀)로, 희소성을 지닌 불화	2014.5.21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43호)	칠성도 (七星圖)	19세기 중반 경에 제작된 중소형급의 채색 불화로, 화사(畫師) 익찬의 화풍을 파악하는데 가치가 있는 작품	2014.5.21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44호)	목조아미타여래 좌상 (木造阿彌陀如來 坐像)	크기는 작지만 얼굴, 옷주름, 연화좌 위로 흘러내린 옷자락의 표현 등에서 조각가인 상정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며, 제작시기, 제작자, 용도와 기능이 명확하여 18세기 불상 연구의 자료적 가치가 높음.	2014.5.21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54호)	금동십일면관음 보살좌상 (金銅十一面觀音 菩薩坐像)	십일면관음이라는 도상적 특징, 지권인의 수인, 천의를 광배처럼 두른점, 화려한 장식 등에서 사례가 별로 없는 이색적 작품이며 소형적 우수함과 더불어 고려시대 보살상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높은 작품임	2015.3.18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55호)	범어사 비로전 (梵魚寺 毘盧殿)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지역 목조 건축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던 익공식 맞배집의 우수한 사례로 익공식 공포의 변천과정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임	2015.7.1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156호)	범어사 미륵전 (梵魚寺 彌勒殿)	미륵전은 범어사의 창건,중창에 즈음한 역사적 상황과 가람배치, 건축 상황을 기록한 범어사창건사적 등에 핵심적 서술 대상이며 특히 임진왜란 이후 부산 지역의 시대적, 건축적 지역성을 잘 보여주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건축유구임	2015.7.15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166호)	훈몽자회 책판 (訓蒙字會 冊版)	책판은 인(引)·상·중·하권 총52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에서 조사 보고된 적이 없는 판본이고,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우리 국어의 음운사와 어휘사 변천을 이해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높음	2015.11.18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67호)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梵魚寺 極樂菴 七星圖)	극락암 칠성도는 원래 11폭으로 구성된 불화이나 치성광여래도, 금색성취여래도, 최승길상여래도, 광달지변여래도, 범해유희여래도 총5폭이며 작품의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화풍도 섬세할 뿐만 아니라 조선후기 도상연구에 학술적 가치가 높음	2015.11.18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유형문화재 (제168호)	승자총통 (勝字銃筒)	조선 선조 대에 개발한 소형화기로 육·해전에서 개인용 휴대용 무기로 널리 보급 활용되었으며 이 승자총통은 구경이 작은 점이 특징이며 화약이 7전이고 중탄환은 8개, 소탄환은 10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음각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제작시기가 다른 총통에 비해 비교적 빠르고 조선시대 수공업사 연구 등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16.3.16	부산대학교 박물관
유형문화재 (제173호)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유물 일괄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物 一括)	복장유물 조성발원문의 내용으로 보아 1674년(현종 15) 5월에 조성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불교경전 10종, 후령통, 다라니 2종, 조성발원문 1종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7세기 중엽 복장 의례와 복장 유물의 실태, 생산·유통된 닥종이의 종류, 목판인쇄술 등을 파악 할 수 있는 원천 자료임	2016.9.21	원효암
유형문화재 (제175호)	삼층석탑 (三層石塔)	총 높이가 3.2m인 아담한 규모로 전체적으로 비례가 적절하고 균형미를 갖추었으며 통일신라 하대인 9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탑이다. 완전한 부재를 갖춘 점에서 높이 평가 됨. 9세기 전형적인 석탑 양식과 그 당시의 대표적인 모습을 갖췄다는 점에서 통일신라시대 석탑 연구에 중요한 작품으로 평가됨	2016.9.21	금정구 상현로 79번길 59-15
유형문화재 (제176호)	범어사 목조팔각불감 (梵魚寺 木造八角佛龕)	불감의 형태와 조각수법이 17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조선시대에 제작된 불감은 현존 예가 드문 좋은 자료이며 인왕상 및 보개 부분의 조각에서 뛰어난 조각의상을 보여 주고 있다. 조선후기 불감의 양식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임	2016.11.23	범어사로 250 범어사경내
유형문화재 (제177호)	설미탐진안씨분 재기 (立山耽津安氏分財記)	영남의 대표적인 향반의 의령 설미에서 17대에 걸쳐 450여년간 세거한 탐진 안씨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의 분재 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이며 1650년경의 분재기는 자녀 균분의 상속을 알려주는 사료이고, 1681년의 분재기는 제사상속이 장자에게 고착되는 과정을 밝혀주며 1784년 분재기는 장자 상속분이 고정되어 장자 우대 상속을 알려 주는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음	2016.11.23	부산대학교 도서관
중요무형 문화재 (제24호)	전각장 (篆刻匠)	목각과 석각 외에도 동각, 와각, 도자각, 금속각(銅刻, 瓦刻, 陶器刻, 金屬刻)이 모두 가능하며, 나무의 종류에 따른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돌의 재질에 대한 판독도 능함	2014.12.24	금샘로 591
기념물 (제15호)	금정산성부설비 (金井山城復設碑)	1808년 금정산성을 재축한 후 이에 대한 공사관계 사항 등을 기록한 비	1972.6.26	금강로 217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기 념 물 (제42호)	노포동 고분군 (老圃洞 古墳群)	3세기 중엽에서 4세기 초에 걸친 삼한시대 후기나 삼국시대 초기의 분묘 유적으로서 주거지 2동, 토광묘 45기, 옹관묘 6기에서 토기, 철기, 석기 등의 유물 출토	1996.5.25	노포동 142-1,2
기 념 물 (제62호)	금정산 금샘 (金井山 金井)	부산의 진산인 금정산의 이름이자 범어사 창건설화를 간직하고 있는 명소로 많은 전설과 역사를 간직한 신비한 암괴류	2013.9.25	청룡동 산2-1
민속자료 (제1호)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梵魚寺 皇室祝願 莊嚴繡)	한말 황실에서 범어사에 하사한 장엄수로서 당시 궁중 지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1899~190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3호)	순치8년명 청동은입사향완 (順治8年銘 靑銅銀入絲香盃)	조성연대, 조성지역, 봉헌지 등이 명기되어 있어 조선시대 향완양식을 고찰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1651년 효종 2)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4호)	도광명유제 양이부대발 (道光銘鑄製 兩耳附大鉢)	불교 공예품 중 의식법구로서뿐 아니라 사찰의 바루공양 의식 단면을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자료임 (1822~5년 순조 25~28)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5호)	동치원년명 범어사 금고 (同治元年銘 梵魚寺 金鼓)	고려시대 조성된 금고 양식을 계승한 조선 후기의 대형 금고로서 조성연대, 시주자 등을 명확히 알려주는 자료임(1862년 철종 13)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6호)	선방 축성패 (禪房 祝聖牌)	사찰 선방에 모셔놓고 스님들이 예불을 드릴 때 기원하던 축성패로서 당시 궁중지수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임.(한말)	1999.9.3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0호)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주색지에 백색선묘 기법을 지닌 비왕실 계층 민중불화의 백색선묘 불화의 흐름을 이은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1호)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와 표현기법이 동일, 제작시기는 1860년대로 조선후기 불교 미술연구에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2호)	범어사 석가 26보살도 (梵魚寺 釋迦 二十六菩薩圖)	1887년 제작,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 료 (제13호)	범어사 비로자니불회도 (梵魚寺 毘盧遮那佛會圖)	조선후기, 특히 19세기 각 도상들의 흐름을 연결 하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문화재 자료 (제14호)	범어사 칠성도 (梵魚寺 七星圖)	1891년 제작으로 범어사의 불교미술양식과 계보를 살필 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21호)	범어사 목조시 방삼보자존패 (梵魚寺 木造十 方三寶慈尊牌)	조선시대 원패의 일반적인 형태, 조선후기 불교의식구의 일면을 파악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22호)	범어사 목조석가 여래위패 (梵魚寺 木造釋迦 如來位牌)	조선후기 불단 봉안 목패의 기본형태인 능회형 주연과 연화대좌 및 운룡문이 잘 드러나 있는 작품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23호)	범어사 목조 옴니반메흠소통 (梵魚寺木造 옴니반메흠疏筒)	조선후기 소통 중에서도 돋보이는 작품으로 조선후기 불교의식과 불교공예를 대표하는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24호)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筒)	정방형에 가까운 몸체와 우진각형 뚜껁의 기본골격은 목재로 가구하고 그 표면을 어피로 감싼 후 각 모서리마다 황동 장식으로 마감한 조선후기의 인통으로 대찰(大刹)에서 제작하여 전해지는 불교공예품으로 드문 유물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25호)	범어사 연 (梵魚寺 輦)	가마채인 네 개의 손잡이, 작은집 모양의 몸체, 돛 형식의 옥개로 구성되어 조선후기에 제작되어 그 시대의 연의 형태를 고찰할 수 있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26호)	범어사 바라 (梵魚寺 饒鉞)	놋쇠를 두들겨 제작한 방자유기로 제작연대가 오래된 귀중한 자료	2003.9.16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36호)	금정진 관아터 (金井鎭 官衙址)	조선후기 왜적의 침략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된 국내 최장의 산성인 금정산성을 관리하던 관방시설의 유지(遺址)로서 관아 규모, 운영, 직제, 성격과 관군과 승군들이 머물며 생활했던 생활상을 등을 조명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유적	2006.7.3	금성동 280번지 일원
문화재 자료 (제44호)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淸寺 金井山 城僧將印)	승병의 통솔 및 관할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보이며, 승병관계를 실증적으로 알려주는 소한한 자료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문화재 자료 (제45호)	범어사 자수수복문 병풍 (梵魚寺 繡壽福文 屏風)	조선 말기 불교에 뜻있는 궁인(宮人)이 제작하여 발복 청원의 뜻으로 범어사에 공양한 것으로 보이며 자수의 기법은 뛰어나지 않으나 각 글자의 색조를 달리하여 녹(綠), 청(靑), 자(紫), 남(藍), 황(黃), 홍(紅), 흑(黑), 백(白) 등 최소 8가지 이상의 자연 염색된 비단 실로 수 놓여짐	2008.9.11	범어사 성보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문화재 자 료 (제48호)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內院庵 石造菩薩坐像)	눈, 코, 입이 작은 편이며 머리에 두건을 쓰고 있고, 수인은 두 손 모두 땅을 향해 아래로 늘어뜨려져 있다. 두건과 수인을 통해서 보살상은 지장보살상으로 추정할 수 있으나 정확한 도상은 좀 더 연구 필요함.	2008.12.16	범어사 내원암
문화재 자 료 (제52호)	석조여래좌상 (石造如來坐像)	광서18년(1892년) 제작되었고, 제작자인 금어비구(金魚比丘)는 해규스님으로 밝혀짐 소형이지만 불상 조각양식상 조선후기 양식을 잘 따르고 있는 수작(秀作)의 불상 작품	2010.5.24	금정중학교
문화재 자 료 (제57호)	범어사 고려삼층석탑 (梵魚寺 高麗三層石塔)	이중기단에 옥개받침을 지닌 옥개석 등 통일신라시대의 전형 석탑양식을 따르고 있는 석탑이다. 다만 석탑의 전체적인 규모와 하층기단 면석에 하대저석을 조출한 점, 3단 각형으로 알게 표현된 옥개받침 양식 등으로 보아 고려 초기에 조성된 석탑으로 판단됨	2011.3.26	범어사로250 범어사경내
문화재 자 료 (제71호)	삼강행실도 (三綱行實圖)	2책으로 된 목판본으로 17세기~18세기초에 판각하여 후쇄한 것으로 조선시대 윤리관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	2013.10.23	부산대학교 도서관
문화재 자 료 (제77호)	범어사 사자암 칠성도 (梵魚寺 獅子庵 七星圖)	도상들의 표현 기법이나 광배의 장식문양 등은 18세기 이후 양식을 따르고 있으며, 음영을 활용하여 입체적으로 나타낸 구름 표현은 19세기 말~20세기 금호당 약효와 문성 일파의 불화에서 특징적으로 보이는 입체적인 표현	2014.3.19	사자암
문화재 자 료 (제81호)	거제선생안 (巨濟先生案)	거제도 지역에 재임한 역대의 수령을 순차적으로 추가하여 기록한 누가식(累加式) 필사본 2책으로, 16세기 전반기부터 1907년까지 재임한 수령들의 관계(官階), 임명·부임·교체 시기, 이임 사유 등 거제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	2014.11.26	부산대학교 도서관
문화재 자 료 (제82호)	한중일관계사료초 (韓中日關係史料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조선사편수회에서 작성한 자료이며 1900년대 초 일본 주도의 한국사 연구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	2015.3.18	부산대학교 도서관
문화재 자 료 (제86호)	석조석가여래좌상 (石造釋迦如來坐像)	결가부좌한 자세에 향마촉지인을 취하며 조선후기 불상의 특징을 따르고 있다. 재료는 활석으로 조선시대 불상에서는 보기 드문 재료이다. 활석제 불상에서 보이는 제작 기법상의 특징으로 개항기 이후 불교조각 연구에 자료적 가치가 있음	2015.5.20	부산대학교 박물관

종 별 (지정번호)	문화재명	내용 또는 특징	지 정 년월일	소재지
문화재 자 료 (제94호)	범어사 왕비전하수제연패 (梵魚寺 王妃殿下壽齊年牌)	조선 후기의 불전 내 불단 위에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3점을 한 세트로 조성하는 불교의식구의 하나이며 1781년에 조성된 것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전패 양식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임	2016.11.23	범어사로250 범어사경내
문화재 자 료 (제95호)	범어사 세자저하수천추패 (梵魚寺 世子邸下壽千秋牌)	조선 후기의 불전 내 불단 위에 왕과 왕비, 세자의 만수무강을 빌기 위해 3점을 한 세트로 조성하는 불교의식구의 하나이며 1748년에 조성된 것으로 조선후기에 제작된 전패 양식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임	2016.11.23	범어사로250 범어사경내
문화재 자 료 (제96호)	범어사 유제로(梵魚寺 鑪製爐)	전이 달린 대야 모양의 노신에 짧은 다리가 4개 달린 유제로로 크기가 상당히 크고 보존 상태가 좋으며, 부산의 명찰인 범어사에서 실제로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점이 문화재적 가치를 지님	2016.11.23	범어사로250 범어사경내
문화재 자 료 (제97호)	범어사 청수관(梵魚寺 清水罐)	사찰에서 오랜 기간 사용해왔던 불교의식구의 하나로서 근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찰의 실생활에서 실제 사용해왔던 중요한 불교 의례용품으로서 그 예가 드문 편으로 명찰에서의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유물임	2016.11.23	범어사로250 범어사경내

제3절 공보행정

1. 공보행정의 기본방향

최근 스마트 시대를 맞아 주민들이 적극적이고 편리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의견을 나누는 통로로서 공보행정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공보행정의 목표는 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구정의 이해를 구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양방향적 행정을 추구하는 것이다.

우리구는 이런 트렌드에 맞는 효과적인 홍보 기법을 개발해 보다 앞서가는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일방적으로 구정을 알리는 행정에서 새로운 구정 시책에 대한 비판과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수렴하는 행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는 구정모니터 기능의 활성화와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참여의 기회를 확대시켜 보다 알찬 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구민의 구정 참여를 유도하여 행정의 대 구민 공감대를 확대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수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공개 행정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공보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공보행정의 방향을

- 첫째, 지역 언론을 비롯한 각종 언론매체에 정보를 적극 제공하고,
- 둘째, 보도자료에 대한 주민의 피드백을 즉각 인지하여 적극 수렴하며,
- 셋째, 금정소식지 발행, 홈페이지 포토갤러리 운영 등 적극적인 구정 홍보로 정해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 주요 추진실적

가. 언론매체(신문, 방송 등)를 통한 홍보

구정의 각종 시책 등 보도자료를 주요 7개 언론 방송사를 비롯하여 총 57여개 언론기관에 제공하여 다수의 주민이 빠르고 정확하게 구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는 언론매체 활용 홍보방법을 주요 홍보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언론매체는 각종 방송을 통한 방법과 인터넷을 활용하여 다중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방법, 신문 등 지면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 등 크게 세 가지다.

방송의 경우는 공중과 TV 매체의 지방뉴스시간 등을 활용하여 구정시책 및 생활정보, 공지사항 등을 전달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방송 매체인 CJ헬로비전 과 연계하여 각종 행정정보와 구정소식을 방송함으로써 생동감 있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면을 통한 정보제공 방법으로 각 일간지와 지역신문의 사회면, 포토 뉴스란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구정에 대한 자료를 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파급력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 뉴스 매체들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정홍보 등에 좋은 효과를 낳고 있다.

방송은 수용자의 연령, 성별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전달 범위가 넓고 현장감이 있어 호소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고, 신문은 지면을 통한 신뢰감이 높고 기록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 영향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며, 인터넷 뉴스 매체는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어서 순식간에 정보가 전파되는 파급력이 크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들 매체별 특성에 맞는 보도 자료를 작성, 제공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언론매체도 홍보여건의 변화 추세에 따라 개방화생활화 되고 있으므로 언론인과의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고 브리핑 제도의 정례화 등을 능동적으로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증진해 나가고 있다.

○ 2016년 언론보도 현황

- 언론보도 : 2,332회(홍보성 2,009회, 시정성 9회, 중립성 314회)
- 자료제공 : 주요역점사업, 각종 행사 및 우수시책 등

나. 월간 「금정소식」발간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구정의 홍보와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1일 「금정소식」을 제작 발행하여 구정 주요소식이나 생활정보, 지역미담 사례 등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금정소식」은 지난 88년 1월 우리구 개청과 더불어 발간해 오다가 시대적 환경 변화와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2002년 4월부터는 타블로이드 16면으로 증간하여 현재 매월 45,500부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신문인 「e-book 금정소식」을 발행하여 홈페이지에서 상시 구독 가능하고 인터넷 구독을 원하는 주민에게는 개인 메일로 송부해 주는 행정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 금정소식지 발행 : 12회 546,000부(매월 45,500부)
- 2007년 2월부터 40,000부 발행, 2012년 3월부터 45,500부 발행
- 배부처 : 구청, 동 주민센터, 유관기관, 지하철역, 아파트, 대형마트, 지역대학 등
- 인터넷 신문(e-book 금정소식) 발행 : 12회(구 홈페이지 게재)
- 메일링서비스 신청 구독자 수 : 1,200여명

다. 실시간 미디어 SNS를 활용한 홍보

정보화 시대의 환경에 발맞춘 홍보 방안으로 2011년 3월 31일부터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2014년 11월)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구정행사 및 공지사항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시간공간의 제약 없이 구정 홍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에 금정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해 활동함으로써 ‘Feel금정’ 블로그 등의 SNS에 서포터즈들이 취재한 다양한 콘텐츠와 생동감 넘치는 사진을 올려 한층 더 친근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하며 구민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되었다.

- 금정구 트위터 운영 (<https://twitter.com/geumjeonggu>)
 - 팔로워 수 : 6,579명(누적)
- 금정구 블로그 운영 (<http://blog.naver.com/geumjeonggu>)
 - 방문자 수 : 433,930회(누적)
- 금정구 페이스북 운영 (<http://facebook.com/geumjeonggu>)
 - 좋아요 수 : 1,422회(누적)

2016 언론으로 본 금정구

【‘드론산업’ 위해 대학-지자체 손잡다】



1월22일(금) 21:30



앵커 : 무인항공기, 이른바 드론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여러가지 규제가 아직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지자체가 손잡고 ‘드론 산업’ 활성화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길게에 기잡니다.

리포트 : 자동차처럼 달리다가 수직으로 이륙하고, 날개를 위 아래 이종으로 달아 더 심한 하중도 견딜 수 있습니다. 10여 년 동안 부산대 부품소재산학협력연구소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장치들입니다. 이처럼 드론이 제품화되기까지 가장 중요한 건 시범 비행. 하지만 비행금지구역이 곳곳에 있어, 항공법 등에 의한 규제가 적지 않고, 무엇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 시범 비행에 제약이 많습니다.

변영섭 부산대 박사 : “거의 전부라고 보면 되죠. 밖에 나가서 띄워 보고 테스트해 보고 결과를 갖고 계속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 (비행)시험장이 사실 제일 중요하지요”

리포트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정구가 유동연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정산성 다목적 광장 일원을 드론 교육훈련장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 : “금정산성을 일반 드론 조종자들에게 연습장소로 제공하고 일자리사업에 공동 참여할 계획입니다.”

리포트 : 부산대는 금정구와 업무협약을 계기로 올 상반기 드론 관련 학교 기업을 열어 2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강범수 부산대 교수 : “10년 간 노하우로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키우겠습니다.”

리포트 :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른 드론 산업, 대학과 자치단체의 작지만 실질적인 협력이 어떤 성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길게에입니다.

▶ NEWSIS, 부울경뉴스, IBS 1.18. / KNN, 국제신문, CJ헬로비전 1.21. / KBS 1.22.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부산서 특강】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부산서 특강
(부산·경남=뉴스1) 김항주 기자

2016년 02월 29일 (월)
종합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2014.10.24/뉴스1 DB© News1

부산 금정구는 다음달 4일 구청 대강당에서 서대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하 유니세프) 사무총장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구청 직원 3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양과 매너'라는 주제로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글로벌 매너 의식 함양을 위해 90분 가량 진행되며, 강연 후에는 질의 응답시간도 갖는다.

서 사무총장은 지난해 4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무총장에 취임했으며, 주유엔대표부대사, 주형가리대사,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 외교특임교수, 대통령 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제협력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글로벌 파워 매너-개인의 품격을 완성시키는 기술'이 있다.

금정구 관계자는 "아이들이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니세프와 협력해 전 세계 고통 받는 어린이를 돕는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정구는 지난 2012년에 유니세프와 협력도시 협약을 체결한 이후 세계최초 서동유니세프 마을을 선포하고 유니세프 작은 도서관을 개관한 바 있다.

▶ News1, 부울경CNB 2.29. / 리더스경제, IBS 3.8.

국제신문

2016년 02월 04일 (목)

사회 08면

안창마을 등 부산 3곳 '새뜰마을' 선정

정부 예산지원 주거개선 사업 생활편의·재해방지 시설 설치

부산 금정구 부곡4동과 동구 범일4동 안창마을, 남구 우암마을 등 3곳이 '새뜰마을'로 선정돼 주민 주거개선사업이 실시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선정하는 '새뜰마을'은 중앙정부가 열악한 주거여건 개선을 위한 예산을 지원한다.

지역위는 3일 19차 위원회를 열어 2016년 새뜰마을사업 대상지 66 곳을 확정하고 다음 달부터 국비 700억 원을 들여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부산에서 새뜰마을로 선정된 안창마을 등 3곳은 한국전쟁 당시 피난민 등이 조성한 산비탈 달동네 등으로,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지역위는 금정구 부곡동 등 부산의 새

뜰마을에는 연탄·석유 등 생필품 운동을 위한 골목길 조성, 상하수도 정비사업과 함께 공동 화장실 설치, 옹벽·축대 등 재해방지시설 보수사업이 이뤄진다고 밝혔다.

안창마을은 1990년대 신발산업이 쇠퇴하면서 공동화가 심화돼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황이고, 우암마을은 일제강점기에 소막사가 있었던 주거불량지역이어서 새뜰마을로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역위는 설명했다.

울산에서는 1970년 일산유원지로 지정된 이후 개발과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동구 일산진 마을과 산업단지와 철길사이에 놓여 개발이 지연된 북구 원연마을 등 2곳이 새뜰마을로 지정됐다.

경남은 밀양시 산외면 희곡리, 창원시 진전면 여양리, 고성군 영현면 대법리,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함안군 여항면 외암리·내곡리, 합천군 대양면 오산리, 통영시 서호동, 진주시 상봉동·봉래동 일원 등 8곳이 지정됐다.

손균근기자 kkshon@kookje.co.kr

- ▶ CNB뉴스, 부울경뉴스, IBS, 연합뉴스, 매일경제, JTBC, YTN, MBN, 아시아투데이 2.3. / 국제신문, KBS, 브레이크뉴스 2.4.

부산 금정구·파크랜드 유니세프와 사회공헌

부산 금정구는 15일 금정구청에서 (사)파크랜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사업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금정구는 △스마일나눔 걷기대회 △자선바자회 △아우인형 캠페인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한다. 파크랜드는 △자선바자회를 통한 모금 및 유니세프 홍보 △전국 매장 및 대리점에 유니세프 모금함 비치 △아우인형 캠페인 지원 및 참여 △금정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원 등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번 협약으로 파크랜드에서 제공되는 자투리 원단과 단추 등은 유니세프 아우인형 만들기 재료로 제공된다. 아우인형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어린이들의 예방접종 및 말라리아 모기장을 지원하는 유니세프 주관의 형겁인형 만들기 캠페인이다.

김신은 기자

- ▶ 부울경뉴스 3.12. / 부산일보, IBS, CJ헬로비전 3.15. / 리더스경제 3.16. / CNB뉴스, 파이낸셜뉴스 3.17.

【금정구, 청소년 세계시민학교 개최】



2016년 03월 29일 (화)

종합

금정구, 청소년 세계시민학교 개최

부울경뉴스 webmaster@bulgunnews.com

2016년 4월 1(금) ~ 4월 2일(토) 금정구 서동 동상초등학교 학생들 30명, 청소년 세계시민학교 참여하여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세 배운다.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청소년 세계시민학교를 개최하여 동상초등학교 학생들 30명이 오는 4월 1일부터 2일까지 에덴밸리리조트(양산시 어곡동 소재)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아동권리존중·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세계시민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여러 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세계시민교육 수도를 표방하는 금정구는 '금정문화예술교육특구'와 '유니세프협력도시'라는 브랜드에 걸맞게 그간 국제 청소년 교류캠프, 글로벌 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국제워크캠프 등 금정구를 이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차세대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여러 국제 행사를 적극 유치해 왔다.

금정구 관계자는 "이번 청소년 세계시민학교를 통해 참가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여 폭넓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금정구 미래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 IBS, 경성신문 3.28. / 부울경뉴스 3.29.

【금정구, 내 몸에 딱 맞는 취업 컨설팅】



2016년 04월 02일 (토)

종합

금정구, 내 몸에 딱 맞는 취업 컨설팅

부울경뉴스 webmaster@bulgunnews.com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사상 초유 청년 실업에 대한 고민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고자 관내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청년 취업지원사업에 발 벗고 나선다.

금정구에는 현재 대전전자정보고, 부산정보관광고, 금정전자공업고 등 3개 특성화고와 부산예원고, 경호고 등 2개의 평생시설학교를 포함해 총 5개의 학교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전자?통신?정보?조리?관광?간호?미용?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있다.

이에, 금정구에서는 청년 취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오는 4월6일 금정전자공업고를 시작으로 4개 학교 105명에 대해 「취업지원 개인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은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 △개인별 취업전략 세우기 △이력서?자기소개서 등 취업서류 작성 및 첨삭 코칭 △1:1 면접클리닉 △비전 세우기 및 자존감 형성 등 참여와 실습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며, 나아가 참여 학생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한 취업 성공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금정구 중소기업발전협의회, 교육청, 부산경영자총협회 등 민?관?학 협의체를 만들어 특성화고 학생 취업을 위한 협력방안과 학교와 중소기업간 교류의 물꼬를 마련할 계획으로, 하반기에는 고교취업준비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인사담당자, 졸업생 취업성공담 강의 등 「청년 Dream 취업성공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그동안 대학생, 중장년층, 여성경력단절자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은 많이 있었으나 고교 취업준비생들에 대한 지원이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학생신분에서 바로 직업인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걸음에 손을 잡아주는 금정구의 조력자 역할에 기대가 모아진다.

한편, 금정구 관계자는 “특성화고 학생 취업 지원사업이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인식개선 및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어 취업 성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역 청년 실업을 해소에 큰 자신감을 나타냈다.

부울경뉴스 편집부

▶ IBS, CNB 4.1. / 부울경뉴스 4.2. / 부산일보 4.5.

【어린이·청소년 정책, 우리 손으로 정할 거예요】

부산일보

2016년 04월 13일 (수)
사회 12면

“어린이·청소년 정책, 우리 손으로 정할 거예요”



어린이·청소년 정식 의회
부산 최초로 금정구서 출범
의원 50명... 방학 때 본회의
단복 색깔부터 스스로 결정

어린이·청소년 정식 의회를 출범시키는 것은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금정구청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 권 실현을 위해 어린이·청소년 의원 50명을 위촉한다고 12일 밝혔다. 오는 16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어린이·청소년 의회 발대식이 열린다.

이번 의회 구성은 지난 2월 금정구의회에서 제정된 '금정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따른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 등에서 이들을 대 상으로 체험형 모 의회를 마련하는 사례는 많았지만, 정식 의회의 형태를 띤 것은 없었다.

구청은 지난달 17일부터 금정구에 거주하거나 금정구 지역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고, 이달 4일까지 어린이 23명, 청소년 27명 등 총 50명이 봉사자에 지원했다. 청소년의원의 경우 고교생이 아닌 청소년도 지원할 수 있다.

다다수 의원이 정규학기에 학교를 다니는 점만 제외하면 운영방식 등이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하다. 의원 대부분이 학교에 다니므로 본회의는 학교가 방학을 맞는 8월에 개최할 계획이다. 학기 중에는 아동권리교육(워크숍)과 상임위원회(소모임) 활동, 아동권리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의장과 부의장 1명씩을 뽑아 의정단을 구성하고, 교육·문화·복지·안전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뒤 각 상임위 소속 의원마다 알맞은 직무를 수행한다.

아직 의회가 정식 출범하지 않았지만,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은 벌써 한 가지 안전권을 협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들이 1년 동안 입게 될 단복의 색깔을 정하는 것이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소속 의원들은 1년간 금정구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금정구청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부산사무소와 연계해 의회를 운영할 방침이다.

금정구청에서는 2014년과 2015년 2차례에 걸쳐 청소년 총회를 운영하면서 아동의 목소리를 구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금정구청 여성가족과 관계자는 “책임감을 심어주고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 의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 ▶ IBS 4.12. / 부산일보, 부울경뉴스 4.13. / 경성신문 4.18. / 리더스경제 4.19. / 국제신문 4.20.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7일 개막

금정산성 다목적광장·4대문 등서
야간캠핑·걷기 등 체험행사 다채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금정산성 다목적광장 및 금정산성 4대문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축제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6’이 열린다.

올해는 ‘금어빛으로 물든 산성’을 주제로 27일 금샘에서 직접 봉송한 금샘물을 현장에서 합수하는 금샘합수식과 금어송천식, 갈놀이퍼레이드를 개막식에서 선보인다. 또한 1박 2일로 동문에서 가족단위로 산성수호대 및 캠핑체험을 하는 ‘산성수호대야간캠핑’, 28일 북문에서 동문까지 야간 걷기 체험을 하면서 주제공연 및 숲속 음악회

를 감상할 수 있는 ‘금정산성 달빛걷기’ 등 올해 새롭게 선보인다.

이 외에도 다목적광장에서 △금어잡기 한마당 △조선무기체험 △금어소원지 달기 △금어빵 홍보관 등이 운영되며, 동문을 비롯한 4대문에서는 △마당극 ‘금정산성 국방촌의 전설’ △호패제작 체험 △산성음악회 △병영음식체험이 진행된다.

연계행사로 △막걸리 동창회 △금정산 시민견 기대회 △스탬프 랠리 등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 등이 준비돼 있다.

자세한 축제 일정과 내용은 금정구 축제홈페이지(<http://festival.geumje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금정구청 문화공보과(051-519-4067)로 하면 된다. 장청희 기자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금정산성 역사문화축제 2016’이 열린다. 사진은 지난해 금어송천식 퍼포먼스 모습.

- ▶ 서울신문, IBS, 브레이크뉴스, CJ헬로비전 5.12. / News1, NEWSIS 5.15. / 리더스경제 5.16. / 부산일보 5.18.

국제신문

‘풀뿌리 문화 자치’ 금정문화재단 출범

2016년 06월 24일 (금)
사회 08면

부산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 2년여 설립 과정 진통 겪다 민간 전문가 참여 협치 구조 문화시설과 연계 콘텐츠 개발

부산지역 기초단체 중 처음 2년여 설립 과정 진통 겪다 민간 전문가 참여 협치 구조 문화시설과 연계 콘텐츠 개발

말도 탈도 많았던 부산 금정문화재단이 출범했다. 지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는 처음 설립되는 문화재단이다. 금정지 역 풀뿌리 문화의 중심점 역할을 할 것 으로 기대된다.

부산 금정구는 23일 오후 금정구 금 정문화재단 사무실(부곡1동 주민센터 4 층)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원정희 구청 장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금정문화재단

은 지역 문화 정책과 관련한 사업 전반 을 담당하는 컨트론타워 역할을 맡는다. 기초자치단체 단위 문화재단은 전국적으 로 서울 마포구와 대구 수성구 등 60여 곳에 있다.

금정문화재단은 지난달 3일 창립이사회를 개최했고, 같은 달 24일 8명의 신규 직원을 뽑았다. 2명의 구 파견 직원까 지 총 10명으로 구성된 재단은 경영지원·생활문화·글로벌사업팀 등 3팀 체제로 문화예술 창작·네트워크를 지원하고, 문화예술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돕는다. 임원은 이사장(금정구청장), 이사 8명, 감사 2명 등 11명이다.

구는 매년 출연금 2억 원을 적립해 5년 후 10억 원의 자산을 조성할 계획이

다. 구는 올해 운영 예산 6억 원을 지원 한다. 하지만 앞으로 구 지원금뿐만 아 니라 수익 사업을 벌여 독자경영의 발판 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4년 9월 재단설립 기본계획이 수 립되면서 본격 추진된 금정문화재단은 그간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2년간 의 설립 과정에서 잡음이 많았다. 문화 계와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이 도마 위에 올랐다.

또 ‘부산문화재단이 있는데 기초자치 단체의 문화재단 설립이 꼭 필요한가’ 에 대한 논란과 다른 지역 문화재단의 조례를 베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럼에도 지역 문화계는 정부 주도의

문화행정을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참 여하는 협치 구조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금정문화재단 출범을 반기고 있다. 부산 문화재단 황해순 예술진흥본부장은 “서울 대구 같은 도시뿐만 아니라 군 단 위에서도 재단설립이 확장되는 추세다. 부산문화재단과 상생 효과를 기대한 다”고 말했다.

원정희 구청장은 “부산 첫 기초단체 문화재단이다 보니 ‘우리가 모범적으로 잘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 다”며 “부산대앞 예술공연지원센터, 서 동 예술창작공간 등 거점 문화 시설과 연계해 금정구만의 문화 콘텐츠를 만들 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호걸 기자 rafaell@kookje.co.kr

- ▶ IBS 6.20. / NEWSIS, 부울경뉴스, 한국공보뉴스 6.21. / CJ헬로비전 6.23. / 국제신문, 리더스경제 6.24.

268 | 2017 금정구청 구정백서



12일 부산외대 트리니티홀에서 열린 '제2차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워크숍' 개막식에서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부산서 '세계시민교육 청년 워크숍'

38개국 청년 리더 49명 정보 공유
16일까지 머물며 네트워크 구축

전 세계 38개국에서 세계시민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청년 리더 49명이 부산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제2차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워크숍'의 막이 올랐다.

12일 부산시 금정구 금샘로 부산외국어대 트리니티홀에서 열린 개회식은 정우탁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PCEIU) 원장의 개회사, 유엔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사무국의 김민정 과장과 부산외대 이정배 부총장의 환영사, 원정희 금정구청장의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정 원장은 "세계시민교육 어젠다에 청년의 목소리와 요구를 담아냄으로써 변화를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번 워크숍이 세계시민교육 청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했다.

김 과장은 "전 세계 18억명에 이르는 청년은 그 자체로도 영향력이 크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그룹"이라면서 "이 자리를 통해 많은

경험과 정보를 나눠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원 구청장은 "이번 워크숍이 여러분의 인생에 소중한 자산이 되고 즐거운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믿으며, 여러분의 꿈이 지구촌 모든 이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북미·유럽,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북아프리카 5개 지역을 대표하는 18~24세의 참가자들은 오는 16일까지 부산외대 기숙사에 머물며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청년 리더들의 역할', '세계시민교육 만나기', '세계시민교육 심화 이해',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소셜미디어의 활용'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펼치고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리더십 실천 전략'을 수립해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14일에는 인문학 서점 인디고서원, 유엔 기념공원, 범어사, 서동예술창작공간 등을 방문해 현장학습에도 나선다.

APCEIU와 GEFI 사무국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교육부가 후원하고 마하트마간디 평화·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MGIEP),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 금정구가 협력 기관으로 참여한다. 김신은 기자

- ▶ 연합뉴스, 경성신문, IBS 7.5. / 부울경뉴스, NEWSIS, 한국공보뉴스 7.6. / 인투데이 7.9. / 매일경제 7.10. / 리더스경제 7.13.

【금정구, 국제워크캠프 개최】

news1

2016년 07월 17일 (일)
사회

부산 금정구, 세계 10개국 청년 참여 '국제워크캠프' 개최



부산 금정구는 오는 18일부터 세계 10개국 청년들이 참가하는 국제워크캠프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해 국제워크캠프 프로그램을 통해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청년이 아이들과 교류하고 있다. (부산 금정구 제공) © News1

부산 금정구는 오는 18일부터 27일까지 다국적 청년들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세계시민역량을 강화하는 '국제워크캠프'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전 세계 10개국에서 모인 청년들이 2~3주간 함께 생활하면서 환경, 예술, 교육, 사회통합, 문화재 보존과 관련된 자원봉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국제교류프로그램이다. 금정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 국제워크캠프를 실시한다. 금정구와 (사)더나은세상, 국제워크캠프기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한국을 포함해 총 10개국에서 온 14명의 청년들이 9박 10일 동안 서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개시한다. 참가자들은 오는 18일 부산에 도착해 환영식을 하고 19일부터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이들은 동상초등학교 세계음식문화체험, 지역 환경개선, 아동대상 교육봉사활동, 세계시민교육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면서 공동체 삶의 의미를 이해하고 실천할 예정이다.

또 지역주민들과 아동들에게 다문화 감수성 향상과 세계시민교육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범어사에서 진행되는 발우공양 등 한국전통문화체험 및 수료식을 끝으로 금정구에서 모든 활동을 마무리한다. 세계시민교육의 수도를 슬로건으로 내건 금정구는 '청년 리더십 워크숍' '청소년 세계시민학교' '장기자원봉사호스트' 등 다양한 국제기구 및 국제 NGO 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 IBS 7.14. / NEWSIS 7.15. / News1 7.17. / 국제신문, CJ헬로비전 7.18.

【금정구, 한·영 청소년 교류캠프 개최】

경향신문

2016년 07월 26일 (화)
종합

부산 금정구의 세계화 교육

부산 동래여고 2학년 최지임양(17)은 '한·영 청소년 교류캠프' 참가자로 선정된 뒤 들른 마음에 지난 20여 일 간 방랑을 즐겼다. 27일부터 7박 8일간 한국(13명)과 영국(12명)의 여고생 25명이 함께하는 캠프. 최 양은 6월 초 참가신청을 한 뒤 한 달 가량 마음을 조리며 선정되기만을 기원했다. 최 양은 "영국 여고생들과 함께 지낸다는 생각만으로도 7월 한달이 즐거웠다"며 "누구를 만났지 너 무나 설레인다"고 26일 말했다. 부산정보관광고 3학년 이현지양(18)은 "영국도 한류 붐이 일고 있다고 들었다"며 "살롱음악과에 진학해 보컬을 전공할 예정인데 영국 친구들 앞에서 실력발휘를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산 금정구가 지난해 8월 한·영 청소년 캠프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여고생 27명이 다양한 교류활동을 즐겼다./금정구 제공

부산 금정구는 지역 청소년들의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국제교류를 통해 다문화 포용력을 강화시키기 자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7박 8일간 합숙하면서 경을 나눌 수 있고 다채로운 행사로 꾸며져 금정구의 여고생들 사이에서는 캠프 참가 자체가 선망의 대상이다.

올해 캠프는 단순 교류차원을 넘어 범어사 템플스테이, 서동미로시장 탐방 등 한국문화 체험행사와 함께 국제이해, 세계시민의식을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지구촌의 분쟁도 토론의 한 주제다. 또 시재생각을 배화그리기 등 봉사활동도 펼친다. 금정구 관계자는 "경제 선진국의 청소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할지를 가르치는 행사인 만큼 전체 일정 중 사흘이 봉사활동"이라고 말했다.



산 금정구가 지난해 8월 한·영 청소년 캠프에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여고생 27명이 참가해 다양한 교류활동을 즐겼다./금정구 제공

문화예술교육특구, 평생학습도시, 유니세프협력도시인 부산 금정구는 무엇보다 세계화 교육에 힘을 쏟고 있다.

금정구는 2015년 '세계시민교육수도 글로벌 금정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뒤 유엔협회세계연맹,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유니세프 등과 교육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기구 관련 행사들의 특강을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의 '2015 세계교육포럼'에 참가하기도 했다.

한미 청소년 교류캠프, 34개국 청소년이 참가하는 '글로벌 시민교육청소년 리더십 워크숍', 국제워크캠프,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스마일나눔 걷기대회, 유네스코 국제이해 사인교실 등 청소년 대상 국제행사를 일년 내내 개최하고 있다. 원정회 금정구청장은 "평화, 인권, 다양성, 정의, 민주주의, 배려, 비차별, 관용 등 보편적 가치를 인식하도록 하고 공감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국제교육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 경성신문, 부울경뉴스, IBS, 한국공보뉴스 7.25. / 부산일보, 경향신문, CJ헬로비전 7.26.

국제신문

2016년 07월 26일 (화)
사회 08면

매니페스토 대회서 최우수

김정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2016 민선 6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번 경진대회는 ▷청렴 ▷일자리 ▷도시재생 ▷청년문제해소 ▷사회적 경제 ▷주민참여 ▷소식지 등 7개 분야가 평가 대상이며, 구는 사회적 경제 분야(전통시장 지원강화)에서



‘아름다운 길, 문화가 있어 행복한 서동 미로시장’ 프로젝트로 호평을 받았다. 원정희(사진) 구청장은 “서동 미로시장에 예술창작공간, 셋골문

화촌, 유니세프 도서관 등 다양한 전통시장 문화 인프라를 조성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아 수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 경성신문, 부울경뉴스, IBS, 한국공보뉴스 7.25. / 국제신문, CJ헬로비전 7.26.

부산일보

2016년 10월 27일 (목)
사회 09면

'산산조각 난 표석' 시민 한마음으로 되살려

고당봉 새 표석 경과와 의미

캠페인 통한 복원 전국 처음
모금 5일 만에 1억 원 넘겨
총 9차례 건립추진위 개최
"새 표석 무사히 세워 감사"

2029년, 1억 3000여만 원,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힘을 모아 금정산 고당봉 표석을 건립하는 범시민 모금 캠페인이 닷새 만에 세운 기록이다. 성금이 마련된 지 3개월여 만에 금정산 주봉 고당봉 정상엔 모금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 새 표석과 함께 올랐다.

■ 닷새 만에 '1억 돌파' 진기록

시민들이 힘을 모아 표석을 건립하는 범시민 캠페인이 진행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산 정상 표석이 나뉘를 맞고 산산이 조각난 것은 전국 국립공원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유례가 없는 이색 사안인데다가, 부산의 상징적인 산에서 벌어진 일이라 시민들의 관심이 더욱 뜨거웠다.

망가진 고당봉 표석을 재 정비하기 위한 비용 수천만 원을 마련하는 데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이 부산일보를 통해 알려지자 부산일보와 담당 구형 등에 '성금을 내고 싶다'는 시민들의 문의 전화가 잇달았다. 곧바로 2000건이 넘는 기부자마다 다양한 사연과 소망을 안고 성금에 참여했다.

고당봉 표석 파손 소식 보도 이후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금정산을 찾는 등산객들

이 크게 늘었다. 페이스북과 밴드 등 각종 소셜 미디어에서도 '벼락 맞은 고당봉' 이야기가 회자됐다.

금정산을 향한 부산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재확인됐다. 8월 16일, 부산시민들이 보내온 성금을 소중하게 쓰기 위해 부산지역 각계각층 인사 재능 기부 형식으로 참여한 '금정산 고당봉 표석비 건립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대학, 종교·문화계, 재계, 지자체, 시민·환경단체, 부산일보 관계자 등 10여 명이 26일 표석을 세우기까지 총 9차례에 걸쳐 회의를 열었고, 소중한 성금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정관에 따라 엄격한 심의와 의결을 거쳐 시민 표석 건립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입산 통제에도 등산객 '복적'

새 표석 건립 작업이 이뤄진 26일, 헬기 작업으로 인해 입산이 통제된다는 사실이 현수막 등을 통해 수일 전부터 알려졌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고당봉을 오른 등산객들이 적지 않았다. 고당봉 표석이 세워지는 모습을 자국이 바리보던 등산객 황승의(49) 씨는 "표석이 부서졌다는 소식을 듣고도 수십 번 금정산에 올랐고, 그때마다 원래 표석이 있던 자리가 허전하게 느껴졌다"면서 "새 고당봉 표석이 천년만년 오래 오래 남길 기대한다"고 활짝 웃었다.

금정산 고당봉 표석비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 임만호(금정문화원장) 부위원장은 "모든 시민의 열정과 희망을 담아 오늘 부산의 진산 금정산에 새 표석을 땅 없이 세울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면서 "나라 안팎으로 많은 일이 있지만, 올려 뜬 시민들의 뜻을 결집해 이룬 것처럼 준엄한 시기에 모두가 마음을 모아 나가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민소영 기자 mission@busan.com



26일 새 표석이 헬기로 금정산 고당봉 정상에 옮겨지고 있다(왼쪽). 모금에 참여한 시민·단체의 이름이 표석 내부에 봉인되고 있다(오른쪽 위, 낙뢰를 맞아 파손된 고당봉의 옛 표석이 복원공장으로 옮겨져 설치됐다(오른쪽 아래).

정종희 기자 jh@

- ▶ 연합뉴스, 중도일보, 부산경제신문, IBS 10.24. / KNN, NEWSIS, 부울경뉴스 10.25. / 리더스경제 10.26. / 부산일보, 국민일보, 한국공보뉴스, BBS, CJ헬로비전 10.27.

부산일보

2016년 09월 23일 (금)

사회 10면

희망 담은 운동화, 아프리카 친구에게...

금정구 4개 예술중·고생 등 운동화 9000여 켤레 희망 메시지 그려 기증



‘독지가가 기증한 민무늬 흰 운동화 수천 켤레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알록달록 그려(사진) 아프리카로 보낸다.’

부산 금정구 4개 예술중·고등학교 미술 전공생 700여 명과 금정구 주민들의 ‘희망의 운동화 나눔 프로젝트’ 이야기다. 운동화에 희망과 평화의 메시지를 그려 아시아와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문화예술교류 프로젝트다. 국제 NGO 아트마일뮤랄 프로젝트(AMMP)와 국제교육구호단체인 아시아아프리카희망기구(WHAF)가 2007년도부터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다. 이들 단체는 매년 운동화 7만여 켤레를 세계 각국으로 보내고 있다. 올해부터 금정구청도 프로젝트 주관

기관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국내 모 유통사가 운동화 등 신발 1만 1000켤레와 옷 300여 벌 등 9억 원 상당의 물품을 선뜻 내놓았다.

오는 10월 부산예중·고교와 브니엘예술중·고교 등 금정구 내 4개 학교 미술전공생 700명이 ‘희망의 운동화’ 프로젝트에 첫 시동을 건다. 이어 다음 달 23일엔 부산 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 온천천 어울마당에서 금정구민 1000여 명이 운동화에 정성껏 그림을 그려 넣을 예정이다.

희망의 운동화 9000여 켤레는 금정문화재단과 아프리카 3개국 대사관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 말까지 가나, 시에라리온, 케냐의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기증받은 운동화 2000켤레와 스포츠 의류 300벌은 금정구청 생활보장과를 통해 금정구 지역 내 차상위계층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원정희 금정구청장은 “세계시민교육수도 금정구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다음 세대 청소년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과 빈곤, 에이즈 등 지구 건너편 친구들의 문제를 함께 생각하며 희망을 나눌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희망의 운동화 나눔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원하는 시민은 다음 달 20일까지 금정구청 홈페이지(www.geumjeong.go.kr) 또는 아시아아프리카희망기구 홈페이지(www.whaf.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민소영 기자 mission@

- ▶ 부산일보, 부울경뉴스, IBS 9.23. / 연합뉴스, 중도일보, 한국공보뉴스 9.24. / News1 9.25. / 리더스경제 9.26.

【UN오케스트라 평화음악회 개최】



UN 오케스트라 평화음악회 '평화 메시지 전하다' (16. 10. 28)

금정구는 27일 유엔협회세계연맹,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과 공동으로 유엔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금정문화회관에서 평화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세계시민교육수도 금정구에서 유엔과 시민사회를 하나로 잇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날 음악회에서는 하나를 위한 음악재단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콘체르토 연주를 비롯해 아리랑 교향곡이 금정문화회관에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은 올해로 유엔 가입 25주년을 맞았으며, 유엔의 날 기념 평화음악회는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펼쳐지는 유엔 오케스트라 아시아 첫 공연이었습니다.

INT. 원정희 / 금정구청장 : 일생에서 한 번 만나기 어려운 유엔오케스트라 공연은 깊어가는 가을밤에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금정구민에게 수준높은 문화향유하는 기회가 되어서 더없이 기쁩니다.

- ▶ 서울경제 10.18 / 데일리한국 10.19. / News1 10.20. / NEWSIS 10.24. /
- 글로벌이코노믹, 아시아뉴스통신 10.26. / 머니투데이 10.27. / IBS, 한국공보뉴스,
- CJ헬로비전 10.28. / 부울경뉴스 10.29.

【아우인형 만들기 대축제】

2016년 11월 07일 (월)
모닝와이드

부산경남 대표방송 **KNN**



저개발 국가 어린이 돕기 모금 사업인 아우인형 만들기 대축제가 어제 부산 스포원에서 열렸습니다. 유니세프와 파크랜드 금정구청이 마련한 이번 축제에는 어린이 등 500여명이 내 동생이란 뜻의 아우인형을 만들며 나눔의 기쁨을 배웠습니다. 아우인형은 저개발 국가 어린이들의 질병치료 기금조성을 위해 판매됩니다.

- ▶ IBS, CNB 11.2. / 시사일보, 부울경뉴스 11.3. / 연합뉴스, 세계일보, 매일경제, 헤럴드경제 11.4. / NEWSIS 11.5. / 경향신문, 중도일보 11.6. / KNN, CJ헬로비전 11.7.

부산일보

2016년 11월 16일 (수)

사회 09면

내년엔 금정구서 케냐 문화 느껴 보세요

금정문화재단-케냐대사관 케냐 명예문화원 개소 협약



부산 금정구에 케냐의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금정문화재단은 15일 부산 금정구 북곡동 금정구청 3층 영상회의실에서 주한케냐대사관과 협약(사진)을 맺고, 내년 초 케냐 명예문화원을 금정구에 유치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금정구 관할의 주민센터 내 유휴 공간 등을 검토해 문화원 유치 장소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원에는 아프리카 케냐의 다양한 문화와 관련된 리플릿, 사진 등이 전시된다. 양 기관은 부산지역 내 케냐 이주민, 유학생 등이 문화원을 담당하도록 해 방문객들이 다양한 케냐 문화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정문화재단 관계자는 “주한케냐 대사관과의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원 개소뿐 아니라 주민들이 생소한 케냐 문화를 배우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면서 “향후

주한가나대사관, 주한시에라리온대사관 등과도 추가 협의해 아프리카 국가의 문화를 소개하는 장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정구를 방문한 모하메드 겔로 주한케냐대사는 협약식에 앞서 금정구 남산동 부산외대 본관 4층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금정문화재단 원정희 이사장은 “케냐와의 문화 교류의 장이 지속되길 희망하고, 금정구가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에 있어 선구적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lee88@

- ▶ 노컷뉴스, 부산경제신문, 서울포스트, IBS 11.15. / 부산일보, 국제신문, 프라임경제, 이데일리, 부울경뉴스, 위클리오늘, CJ헬로비전 11.16. / 리더스경제, 세계일보 11.17.

【부산 첫 복합커뮤니티센터 5일 서2동서 개소식 열어】

부산일보 2018년 12월 02일 10면 (사회)

부산 첫 복합커뮤니티센터 5일 서2동서 개소식 열어

부산 첫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금정구 서2동에 문을 연다.

‘부산형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동주민센터의 행정 서비스에 더해 복지·보건·고용·건강·도시재생 관련 서비스를 한 곳에서 지원하는 종합주민생활지원센터를 말한다. 행정기관의 사회복지과, 건강증진과, 도시재생과가 서로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보면 된다.

부산시는 오는 5일 오후 3시 서2동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에서 지역 최초 복합커뮤니티센터 개소식을 연다고 밝혔다.

시는 예산 2억 90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1440㎡ 규모의 기존 서2동 주민센터를 리모델링했다. 1층은 행정 시설, 마을건강센터와 자원봉사 캠프 등으로 활용된다. 2층은 주민생활 편의 지원을 해 주는 시설인 마을지기사무소로 활용된다.

시는 민선 6기 서병수 시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오는 2019년까지 총 66곳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올 4월 공모사업을 통해 지정된 6곳(서2동 남부민1동 명장2동 금곡동 반송2동 민락동)에 대해 센터 조성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자영 기자 2young@
(5.5*18.4)cm

- ▶ 동양뉴스, News1, 서울경제, 부울경뉴스, 서울매일, 아주경제 12.1. / 부산일보 12.2. / CJ헬로비전 12.6.